



살마광선(殺魔光線)이며 불사지약(不死之藥)인 이슬성신을 받아야 영생이요 구원이다

원래 아담 해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천당)에서 살고 있었는데 천당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니가 아담 해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였다. 원체가 되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삼위일체가 되어 에덴동산(천당)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방의 신인 마귀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아담 해와 속에 좌정하고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마귀가 좌정함으로써 아담은 남자, 해와는 여자로 전락하였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따라서 마귀에게 패한 하나님이 절치부신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인간(休泰善)으로 내려와서 잃어버렸던 아담 해와를 찾아 삼위일체를 회복하게 되어 있으니 소위 궁궁(天=목운休泰善)으로 먼저 오게 된다.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을음(德=금운熙照星)에게 도를 전하게 된다. 해와는 여자로 오니 세상에 드러나서 하늘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 궁궁과 을음이 합하니 궁궁을을(弓弓乙乙)이 되어 십승(十勝)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궁을 십승 정도령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강림하여 좌정하신 분이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다(似人不人天神降사인불인천신강).

유불선 합일의 도로써 천지공사

궁궁(하늘)이 전하는 도는 유도(儒道) 같으나 유도가 아니요 불도(佛道) 같으나 불도도 아니요 선도(仙道) 같으나 선도도 아니니 바로 유불선(儒佛仙) 삼도합일(三道合一)의 도이다. 이름 하여 목도(木道=목운의 도)라 한다. 주역의 풍뢰익괘(風雷益卦)에서 말하는 이섭대전 목도내행(利涉大川 木道乃行)의 목도이다. 그 뜻은 '큰

내를 건넌이 이로우니라. 목도가 이에 행함이라.'이다. 큰 내를 건너야 영원한 세상이 나온다.

옛날과 달리 세상이 복잡하고 판이 크므로 한 가지 도를 가지고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유불선 합일의 도로써 천지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궁궁과 을음이 바로 강증산 선생이 말한 두 사람이며 마지막 을음이 궁궁과 하나 되어 궁궁을 십승 정도령이 됨으로써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천지개벽이 되면 죽을 없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을음은 이윤의 도수(五十年而後四十九年之非)로 50세에 자신속의 마귀를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궁궁을 십승 하나님이 좌정하시니 이로써 무극대도를 완성하신다. 또한 문왕도수를 받아 칠년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계묘년을 맞아 하늘에는 때(天時)가 있고 인사(人事)에는 기회가 있다

천당회복 즉 천지개벽의 일은 다 때를 맞추어 하늘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늘의 일에는 다 때가 있으며(天時) 사람의 일에는 기회가 있으니 그 때와 기회를 놓치면 허사가 될 것이다.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계묘년을 맞아 하늘에는 때(天時)가 있고 인사(人事)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나 살고 남도 살려주는 계기를 삼고자 격암유록의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격암유록 송가전(松家田)에는 조선에는 크게 세 번의 운수(삼수륜)가 있으니 미리 알고 행동한다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수룡일수당은 이제송송(水龍一數當運 利在松松)」 즉 임진왜란에는 소

나무가 나를 살린다.(명나라 장수 李如松), 두 번째 「화서제수당은 이제가가(火鼠再數當運 利在家家)」 즉 병자호란에는 집이 나를 살린다. 병자년 음력 12월 폭설이 내릴 때 밖으로 피란 간 사람은 눈에 파묻혀 다 죽게 되니 온돌이 있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수가 눈앞에 다가왔다.

세 번째 「수도삼수종말 이제전전(水頭三數終末 利在田田)」이다. 수도는 물토끼이며 육십갑자로는 계묘를 말한다. 이제전전은 정도령을 만나면 목숨을 보전하는 데 이롭다는 말이다. 이때는 귀(鬼)=小頭無足=天火가 병을 일으켜 나를 죽이는데 정도령을 만나서 감로해인을 받아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없애야 살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도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만 계묘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다른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감로해인 이슬성신으로만이 병(마귀)으로부터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60년마다 계묘년이 있으니 어느 해의 계묘년이나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계묘 이후 갑진 을사 병오에 미륵불이 나와 천지공사를 통해 남북통합 만국통합을 이룬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 [이사야 26:19]
 '삼십삼천상묘감로 불사지약(三十三天上妙甘露 不死之藥)' 「대반열반경 경수품」
 '동해삼신불사약 삼신산하불로초(東海三神不死藥 三神山不老草)' 「격암유록」

등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슬성신(감로해인)으로써 '사망의 신(마귀)'을 죽여 천당 극락에서 시공을 초월한 대자유인(대자유인)으로 기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암유록에서는 율법에 비유하기를 '오묘일길 단동불출(五卯一乞 檀東栢出)'이라고 하였는데 율법은 모 다섯 번에 걸 한 번이면 낙동이 단 번에 나서 이기고 율판을 끝내는 것이다.

오묘(五卯)는 을묘(乙卯) 정묘(丁卯) 기묘(己卯) 신묘(辛卯) 계묘(癸卯)이며 다섯 번째가 계묘가 된다. 이후 겉(乞)이 나오는데 겉은 양이며 구세주(미륵불)를 의미하며 또한 미륵불은 양피로 온다(未來佛)고 불경에서 말하고 있다. 겉은 세 발을 가니가 계묘 이후 갑진 을사 병오에 미륵불이 나와 천지공사를 통해 남북통합 만국통합을 이룬다고 한다. 이를 격암유록은 삼일병화 만국통합(三日兵火 萬國統合)이라고 표현하였다.

지금 판이 바뀌는 중이다. 이처럼 때가 급박하고 곧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으로 들어가는 중인 바 하루 빨리 우물 속에서 뛰쳐나와 입에 재갈을 물고 미륵불(정도령)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이슬성신(감로해인)을 받아 병마의 위협을 물리치고 나아가 죽음의 바다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이슬성신절을 기념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슬성신절의 의미에 부합하리라.

먼저는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자나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리라.*

고서연구가 박명하 010 3912 5953 myunghpark23@naver.com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7>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어린 아이들이 왜 즐겁게 사는지 이는 어찌워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다. 그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기분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없다.

마음에 그늘이 없으면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는 살고 실패자는 죽는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와 더불어

나와 싸워서 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승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왕이면 승리의 한평생을 살아 보자는 것이 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8>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

영생을 목적 삼고 영생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소망을 크게 가지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쁨이 오는 것이다.

소망이 크면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니까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 기쁨이 나오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이다. 이 몸의 피가 죽지 않는 피로 바뀌는 것이다.*

이기는 삶

복(福)과 덕(德)의 상관관계

복(福)과 덕(德)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흔히 조상의 음덕(陰德)을 입어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유교(儒敎)에서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祭事)를 대단히 중요시하며 율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한비자(韓非子)의 명심보감(明心寶鑑) 정기편(正己篇)에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이 보이는 것 같다. 복생어정경(福生於淸儉) 덕생어비퇴(德生於卑退) 복은 청렴하고 겸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긴다는 말이다.

복과 덕이 어디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복은 겸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 데서 생기고, 허물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착한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쓸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익 없는 말을 부질없이 시비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이를 받들며,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를 분별하고,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

순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일을 그르쳤다고 된다.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도 기대에 어긋나는 수

가 있다. 남을 상(傷)하게 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앙이 따르는 법이다.

조심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행동에 있다. 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게 된다. 하찮은 일에도 조심하여 놀라워하며 두려워해야 한다. 위엔 하늘의 거울이 임하여 있고 아래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엔 진리가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엔 귀신이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지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 한비자의 가르침이다.

그럼 부족한 덕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 것일까?

첫째, 일반지덕(一飯之德)이다. 밥 한 끼라도 베풀라는 말이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은덕을 이르는 말이다. 작은 것이라도 베풀라는 것이다.

둘째, 도성덕립(道成德立)이다. 도를 이루어야 덕이 선다는 말이다. 덕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창성(昌盛)하고 번영(繁榮)하는 법이다.

셋째, 음덕양보(陰德陽報)이다.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뒤에 그 보답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넷째, 덕본재말(德本財末)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덕이 뿌리가 되고 재물(財物)은 그 끝이다.

다섯째, 덕무상사(德無常師)이다. 덕을 닦는 데는 일정한 스승이 없다. 마주치는 환경과 대하는 사람 모두가 수행(修行)에 도움이 되고 스승이 되는 것이다.

하늘은 짓지 아니한 복은 내리지 않아 지나간 일에 대하여 원망하면 안 된다.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도 기대에 어긋나는 수

감로이슬성신은 웃는 사람에게 입한다

이슬성신이란 구세주의 본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슬성신의 빛은 태초에 선악과라는 마귀 영한데 지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태초의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선악과라는 마귀 신에게 점령당하여 인간으로 타락하였지만, 이제 그대로 6천년 만에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땅 끝 땅 모퉁이 한반도에서 이기자 구세주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마귀를 소멸하는 이슬성신을 들고 나오신 것이다. 승리제단에 나와서 이슬성신의 빛을 받

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본래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본래의 하나님이란 빛의 존재요 기쁨의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이다. 이 이슬성신은 불교에서 감로(甘露)라고 하며 이 감로를 들고 나오는 자가 생미륵불이라고 하였다. 감로는 반뇌와 정육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이라고 불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감로만이 성불할 수 있고 불성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극락(極樂)이란 극도의 쾌락을 말하는데, 감로가 연결되는 자는 극락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날아다니다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다.

***웃으면** 사람의 털을 벗어낸다. *근심, 걱정, 수심, 우울한 마음을 이기고, 억지로라도 웃는 노력을 하면 마귀가 진다. 틈만 있으면 웃어라. *웃는 것이 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 죽이는 무기야! *폭소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사람은 수명이 10년 20년 늘어난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어주어 피가 맑아진다. *웃음이 저절로 나와야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한다. *계속 웃으면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죽는다.

「2000. 10. 6. 구세주 말씀」
 *예배시간에 감로이슬성신이 웃는 사람

을 찾아서 들어간다. *웃으면 죽을병이 낫는다. 암병, 감기도 낫고 체한 것도 내려간다. *웃기만 웃으면 이루어진다. *기뻐해야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2002. 4. 4. 구세주 말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며 땀속에서 엔돌핀이 펄펄 쏟아져 나와 몸속의 병균을 모조리 잡아먹는다. *웃으면 피가 기뻐하는 피로 변하고, 그 몸에서 기뻐하는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2000. 9. 27. 구세주 말씀」
 크게 희망을 갖고 살면 항상 마음이 기쁘니까, 자주 새로운 피가 생겨서 점점 젊어진다. 「2003. 8. 6. 구세주 말씀」

